

## 상황 변인에 따른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비교\*

송 수 민<sup>†</sup>

한국청소년상담원

본 연구는 부정적 경험의 종류나 관찰자변인(관찰자 심리적 거리, 수)에 따라 개인의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이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녀 고등학생 275명을 대상으로 수치심과 죄책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사건을 무능감이 노출되는 상황과 도덕적인 위반행위가 노출되는 상황의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관찰자 변인에 따른 정서적 결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수치심경향성은 무능사건 상황에서, 죄책감경향성은 위반사건 상황에서 심리적 고통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무능사건 상황에서는 관찰자가 많고 소원한 경우에 수치심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위반사건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죄책감은 관찰자가 많은 경우에만 심리적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친밀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수치심이나 죄책감과 같은 자의식적 정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더불어 상황적 변인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수치심경향성, 죄책감경향성, 상황적 변인, 적응

\* 이 논문은 송수민(2007)의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 비교연구: 심리적 특성과 상황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일부 발췌한 것임.

† 교신저자 : 송수민,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 6동 292-61  
Tel : 010-6577-3812, E-mail : soomin68@empal.com

이차정서는 내가 혹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standard)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비교함으로써 갖게 되는 정서라고 할 수 있으며(Lewis, 2003)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반영(self-reflection)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일차정서보다 늦게 나타나고 좀 더 복잡한 인지능력을 필요로 한다(Lewis, Alessandri, & Sullivan, 1992; 송수민 재인용, 2008)

정서경험에 있어서 기능주의적 관점이 재등장하면서 사회과학 분야에서 정서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정서의 자의식성(self-consciousness) 차원이 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자의식적 정서로 수치심(shame)과 죄책감(guilt)을 들 수 있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대표적인 자의식적 정서(self-conscious emotion)로서 (Lewis, 1992; Tangney & Fischer, 1995) 대인관계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는 한편, 다양한 심리장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유경, 민경환, 2002). 수치심과 죄책감은 괴롭고, 통제가 어려우며, 부정적 자기평가를 수반하는 누구나 원하지 않는 경험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지침을 제공하며,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서이기도 하다.(송수민 재인용, 2008)

수치심과 죄책감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대체로 이를 구분하고자 하는 연구들로 시도되어 왔으며, 이러한 시도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Freud(1905)는 초기 연구에서 수치심은 공개적으로 성적주의를 끌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에 대한 방어로 유발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후의 연구에서는 수치심이라는 개념은 무시하고, 전적으로 초자아의 갈등과 관련된 죄책감을 인지적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Piers와 Singer(1953)는 죄책감을 자아와 초자아의 충돌에 대한 반응으로, 수치심은 자아와 이상적 자아간의 충돌로 보았다. 이러한 구분은 Lewis(1971)와 Erikson(1950)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이때부터 수치심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서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Lewis(1971)는 신 프로이드 학파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인지 양식의 차이가 수치심경향성(shame-proneness)과 죄책감경향성(guilt-proneness)의 차이를 낳는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Witkin, Lewis와 Weil(1968)은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은 장 의존적(field-dependent) 인지 양식 대 장 독립적(field-independent) 인지 양식에 의해서 초래된다고 주장하였다. 장 의존적 인지 양식은 외부 환경에 민감하고 의존적인 사고 양식으로서, 이러한 인지 양식을 가진 사람은 전반적이고(global) 덜 분화된(less differentiated) 자아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이고 덜 분화된 수치심을 경험하기가 쉽다. 반면, 장 독립적 인지 양식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덜 민감하며 독립적인 사고 양식으로서, 이러한 인지 양식을 가진 사람은 자아가 보다 분명히 분화되어 있으므로 자기와 행동을 분명히 구분하는 죄책감을 경험하기 쉽다고 하였다.

Lewis(1971, 1987)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심리내적인 기제로 구분하는 입장을 대표적인 학자로서, 자기(self) 분화를 중심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이후의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Lewis(1971)는 수치심의 경험은 자기(self)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둔 것이고 죄책감은 부정적 평가의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 행해진 또는 행해지지 않은 행위(behavior)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

이점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평가의 초점이 수치심의 경우 전반적인 자기(global self)에, 죄책감의 경우 특정 행동(specific behavior)에 맞추어 진다. 따라서 고통의 수준에서 보면, 수치심이 죄책감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고된다.

Tangney와 Dearing(2002)은 타인에 대한 고려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수치심은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고려하고, 죄책감은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많이 고려한다고 구분하였다. Tangney 등(2002)은 자기전체에 초점을 두는 수치심을 내부, 안정적, 그리고 전반적 귀인에서 비롯되는 정서 상태로 추론할 수 있다고 했으며, Lutwak, Panish와 Ferrari(2002)가 Janoff-Bulman(1979)의 특질 자기비난/행동적 자기비난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수치심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향도 높다고 보고했다.

Lutwak과 Ferrari(1997), Harder와 Lewis(1987) 그리고 Harder 와 Zalma(1990)는 수치심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우울해 하고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며,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회피 정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Tangney 등(2002)은 다양한 상황에서 수치심을 경험하는 경향은 일반적으로 심리적 부적응들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표집대상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개 정신병리 지표 모두 다에서 수치심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국내에서는 류설영(1998)이 수치심이 분노, 우울 그리고 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존에는 이상과 같이 수치심과 죄책감이 갖는 심리적인 특성의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이를 공적, 사적 정서의 차이로 설명하고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Hawthorne(1962)은 수치심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작가로서 주홍글씨(Scarlet letter)를 통해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공적, 사적 구분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Benedict(1946)는 공적, 사적 구분을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수치심은 잘못이나 도덕적 과실이 공개적으로 노출될 때 경험되고, 죄책감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사적인(private)” 경험을 통해 유발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치심은 주로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처벌 같은 외적 규제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간주되었고, 죄책감은 다른 사람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경험인데 이는 타인의 규제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라는 내적 규제에 의해 조절되므로 사적 경험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Tangney와 동료들에 의한 연구에서는 (Tangney, Barlow, Wagner, Marschall, Bornstein, Sanftner, Mohr, & Gramzow, 1996; Tangney, Marschall, Rosenberg, Barlow, & Wagner, 1994; Tangney, Miller, Flicker, & Barlow, 1996) 수치심과 죄책감 경험에는 공개적인 노출이나 ‘청중 의식’ 효과에 차이가 없으며, 수치심이 보다 ‘공적’인 정서라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입증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지나치게 내적, 외적 기준에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졌으며(Piers & Singer, 1971) 이에 따라 심리내적인 기제를 중심으로 한 구분이 그동안 더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져왔다.

Benedict(1946)의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공적, 사적 구분은 이후의 연구자들(Tangney 등, 1994; Tangney 등, 1996)에 의해 타당성이 미약하다고 비판을 받았으나, 아동의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이해의 발달에서는 자신의 잘못

된 과실에 관한 판단이 관찰자 여부에 따라 수치심 혹은 죄책감 경험이 달라지므로 관찰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Barden, Zelko, Duncan, & Masters, 1980; Harter & Whitesell, 1989). 이에 유경과 민경환(2002)은 특히 아동기의 수치심, 죄책감 경험에 관해서 Benedict(1946)의 제안은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아직도 일부 이론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Buss(1980)는 수치심은 사회불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죄책감은 자기증오적이라는 가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죄책감을 가장 잘 측정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위반한 것에 대해서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것이다. 수치심은 근본적으로 공적이며, 누구도 알지 못한다면 수치심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진정한 죄책감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Smith와 Eyre(2002)는 근래의 많은 연구들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하면서 인지적인 요소나 개인내적인 기제에 의한 구분을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면서 전통적인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공적, 사적인 구분과 같은 상황적 요소의 차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실험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그 동안의 수치심과 죄책감 관련 연구가 지나치게 개인내적인 요소들에 국한되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가상적 상황이나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억, 문헌 분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이용한 4개의 실험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주장에 대한 지지를 하면서 공적인 상황에서는 죄책감보다 수치심을 경험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

덕과 관련된(moral) 사건이나 도덕과 무관한(nonmoral) 무능함과 관련된 사건 모두에서 공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이 되면 수치심을 더 경험하게 되며, 도덕과 관련된 사적 영역의 문제에서는 죄책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기(self)의 역할이나 개인의 심리내적 기제를 통해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하는 근래의 연구 동향에서 벗어나, 상황적 변인의 중요성을 실험연구를 통해 재조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연구자들은 수치심과 죄책감이 유발되는 것을 구분하는 전형적인 상황은 없다고 보는 반면(Tangney, 1992), Olthof, Schouten, Kuiper, Stegge와 Jennekens-Schinkel(2000)과 Ferguson, Eyre와 Ashbaker(2000)와 같은 다른 연구자들은 수치심과 죄책감이 유발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특히, Olthof 등(2000)은 수치심은 죄책감과 달리, 원하지 않는 정체감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더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존의 연구들은 수치심과 죄책감이 개인내적인 요인들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공적, 사적 상황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수치심과 죄책감은 서로 분명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많은 부분 중복되고 동시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남기숙(2002)의 제안처럼 우리가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하고, 차이가 될 만한 핵심적인 기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다루어 간다면 인간에 대한 이해 및 심리치료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수치심과 죄책감 관련 연구에서는 상황적 변인이나 관찰자 특성변인과의 관련성은 이제까지 간과

되어져 오고 실험적으로 거의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mith와 Eyre(2002)의 연구에서 수치심과 죄책감 유발 상황을 모델로 하여 도덕과 무관한(nonmoral) 자신의 무능함이나 열등감이 드러나는 상황(이하 ‘무능사건 상황’)과 도덕과 관련된(moral) 규범을 어기는 위반 상황(이하 ‘위반사건 상황’)으로 나누어 개인의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이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부정적 사건에서 유발되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관찰자의 특성변인 즉, 관찰자 수(다수/소수)나 관찰자의 심리적 거리(친밀/소원 관계)가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Smith와 Eyre(2002)의 연구에서 시사되는 바와 같이, 개인의 특성으로서의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은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느냐 하는 부정적 사건의 종류에 따라 심리적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Kaufman(1989)은 수치심은 열등감에 가까운 것, 따라서 도덕적 의미에서 자신이 “좋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보다는 우수하다는 의미에서 “좋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에 가까운 경험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 대체로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사건에서 많이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Zimbardo(1977)는 자의식적 정서의 하나인 수치심과 유사한 수줍음(shyness)이 관찰자가 낯설거나 권위적인 경우 평가받는 상황에서 많이 느낀다고 하였는데, 이는 관찰자가 친밀한가 친밀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하나의 변인이 될 수 있으며, Nathanson(1992)은 수치심의 사회성을 언급하면

서 수치심을 이해하려면 타인과의 관계의 파악이 필연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수치심이나 죄책감도 자의식적 정서로서 타인, 즉 나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특성에 따라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Asendorpf(1986)도 수줍음은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상황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내적인 특성과 관찰자의 특성이나 상황적 요인이 모두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지에 대해 더 많이 의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누가 나를 지켜보느냐 하는 관찰자의 요인이 중요한 변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찰자 수와 관찰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설정하였는데, 똑같은 공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관찰자 수가 많은가 적은가, 그리고 관찰자가 자신과 친밀한 관계의 사람인가 소원한 관계의 사람인가에 따라 수치심과 죄책감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상정하였다. 특히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관찰자가 많은 경우에, 그리고 낯선 사람일 경우에 더욱 수치심을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있고, 위반사건에서 경험하는 죄책감은 자신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력을 많이 고려하는 정서이기 때문에 관찰자의 수에는 덜 영향을 받고 오히려 친밀한 경우에 더 많이 유발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즉, 자신의 과오가 노출되는 상황에서 관찰자의 심리적 거리나 수가 그 상황에서 유발되는 수치심이나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가설 1.** 수치심경향성은 무능사건 상황에서,

죄책감경향성은 위반사건 상황에서 심리적 고통 정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무능사건 상황에서는 관찰자가 많은 경우에 수치심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무능사건 상황에서는 관찰자가 소원한 경우에 수치심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 위반사건 상황에서는 관찰자 수에 따라 죄책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가설 5.** 위반사건 상황에서는 관찰자가 친한 경우에 죄책감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 방 법

### 연구 대상

서울의 Y여고와 K남고, H고교의 남녀 고등학생(1-3학년) 2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응답에 누락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명을 제외한 총 273명(남 120명, 여 15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 측정 도구

#### 자의식적 정서 척도

Tangney, Wagner 및 Gramzow(1989)에 의해 개발된 자의식적 척도-청소년 용(Test of Self-Conscious Affect: TOSCA-Adol)을 사용하여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류설영(1998)이 청소년에게 맞는 상황으로 빈안한 척도(TOSCA-Adol)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의 초점이 자기 전체 혹은 행동에 맞추어 지는가에 따라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하고 있으며 12개의 시나리오에 모두 50개의 반응이 5점 척도로 평정된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TOSCA-Adol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75로 나타났으며, 하위척도인 수치심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70, 죄책감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71로 나타났다. 자의식적 정서 척도에서의 측정된 수치심과 죄책감을 성향적 특성으로 보고 이를 개인의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으로 명명하였다.

#### 부정적 문제의 종류 조작

부정적인 사건은 수치심과 죄책감이 유발되는 사건으로서 도덕과 무관한(nonmoral) 무능함이 노출되는 사건 상황(이하 “무능사건 상황”)과 도덕과 관련된(moral) 위반행위가 노출되는 사건 상황(이하 “위반사건 사건”)을 설정한 2개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였고, 긍정적인 사건 상황은 자신의 유능함이나 자긍심이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을 상정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무능사건 상황.** 수업시간에 다소 어려운 수학 문제가 제시된 후, 선생님께서 자신을 지목하였고 풀지 못한 상황제시

**위반사건 상황.** 시험시간에 마지막 주관식 답이 생각나지 않아 앞 친구의 답을 보고 답안지를 제출하게 된 상황제시

#### 관찰자 특성에 대한 조작

공적 노출상황에서 관찰자의 특성은 관찰자와의 심리적 거리(친밀/소원관계)(2) X 관찰자 수(다수/소수)(2) 상황을 설정하여 모두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위의 시나리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관찰자의 특성이 어떠한 지에 따라 네 가지 상황을 설정해 주고 그 상황에 따른 자신의 느낌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당신

을 지켜보는 사람과 상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당신은 어떠한 느낌을 가질지 당신에게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라는 요청을 한 후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관찰자의 특성변인에 대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조작되었다.

**친밀/다수.** 이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50여명 이상의 많은 친구들이었고, 이 친구들은 대부분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이 친구들은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친구들이다.

**친밀/소수.** 이 과정을 지켜본 친구들은 2-3명 정도의 소수의 친구였으며, 이 친구들은 나를 잘 알며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친구들이다.

**소원/다수.** 이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50여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모르는 사람으로, 앞으로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소원/소수.** 이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나를 잘 모르는 2-3명의 소수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모르는 사람으로, 앞으로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심리적 고통 정도의 측정**

위의 각각의 경우에서 “당신은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느낌이 들겠습니까?”라는 질문이 주어지고 이에 대한 정도를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의 Likert식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

적 고통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수치심, 죄책감 측정**

Smith(2002)의 정서 체크리스트 중 수치심관련 정서와 죄책감관련 정서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각각의 형용사에 대해서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수치심관련 정서는 모두 12 문항으로 공적인 노출과 부정적 자기평가와 관련된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죄책감관련 정서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한 점수의 총합을 문항 수로 나눈 평균값을 구하여 각 상황에서 유발되는 수치심과 죄책감 점수를 산출하였다. Smith의 연구에서 수치심관련 정서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0이었고, 죄책감관련 정서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Cronbach  $\alpha$ )가 각각 .85, .82로 나타났다.

**절 차**

본 조사의 진행은 본 연구자로부터 주의사항을 숙지한 연구보조원이 진행하였으며, 남녀 고등학생을 무선으로 표집하여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분의 생각과 생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조사라고 소개하였다. 무능사건 상황과 위반사건 상황은 집단간 설계를 하여 한 피험자는 하나의 가상적 상황에 대해서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에게 위에서 설명한 상황 중 한 가지가 인쇄된 유인물을 무선적으로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시나리오에 대한 관찰자 특성변인 4가지 경우에 따른 심리적 고통의 정도와 수치심과 죄책감은 개인 내에서 반복 측정하도록 하였다. 질문지의 순서에서 오는

효과성을 통제하기 위해 무능사건 상황의 질문지는 관찰자가 친밀한 경우 다음에 소원한 경우, 다수 다음에 소수인 경우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고, 위반사건 상황인 경우는 관찰자가 소원한 경우 다음에 친밀한 경우, 소수인 경우 다음에 다수인 경우에 대해 응답하도록 문항의 순서를 조절 배치하였다. 응답시간은 가능한 한 심사숙고하여 정확하게 응답하도록 충분한 시간(약25분)을 주었으며, 응답한 질문지는 모든 피험자가 응답을 마친 후 한번에 수거하였다.

자료처리

첫째, 개인의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이 상황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서 심리적 고통정도 간의 단순상관분석 및 준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정적 문제의 종류, 관찰자 수, 관찰자와의 심리적 거리 요인에 따른 수치심과 죄책감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정적 문제의 종류에 따른 무능상황과 위반상황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상황에 따른 피험자의 공분산 동일성을 검토 한 후, 공분산 동일성검증을 한

결과 두 집단이 동일한 집단임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관찰자의 심리적 거리(2) x 관찰자(수)에 따른 수치심 및 죄책감 수준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첫 번째 결과로, 부정적 사건의 종류에 따른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 심리적 고통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또한,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이 가져오는 독립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죄책감경향성을 통제한 수치심경향성 그리고 수치심경향성을 통제한 죄책감경향성과 심리적 고통 정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준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무능사건 상황에서는 개인의 수치심경향성이 심리적 고통 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위반사건 상황에서는 개인의 죄책감경향성이 심리적 고통 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수치심경향성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이나 열등함이 드

표 1. 부정적 사건의 종류에 따른 수치심/죄책감경향성, 심리적 고통정도의 단순상관계수와 준부분상관계수(r)

		심리적 고통 정도 단순 상관계수	심리적 고통정도 준부분 상관계수
무능사건 상황	수치심경향성	.35*	.33*
	죄책감경향성	.14	-.04
위반사건 상황	수치심경향성	.28*	.13
	죄책감경향성	.41*	.34*

\*  $p < .01$

주. 준부분상관계수는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간의 상호상관을 배제한 것임.



러나는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많이 느낄 가능성이 있으며, 죄책감경향성이 많은 개인은 도덕과 관련된 위반사건을 경험할 때에 주관적인 심리적 고통을 많이 느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개인의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이 주관적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람이 경험한 부정적 사건의 상황이 어떠한 종류의 사건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수치심경향성은 무능상황에서, 죄책감경향성은 위반 상황에서 심리적 고통정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 결과로는 도덕과 무관한 무능함이 드러나는 무능사건 상황에서 관찰자와의 심리적 거리나 관찰자 수가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설 2>와 <가설 3>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능사건 상황에서 유발되는 수치심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관찰자의 심리적 거리(친밀/소원)<sup>(2)</sup> X 관찰자 수(다수/소수)<sup>(2)</sup>의 평균을 산출하여 표 2에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2원 변량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의 결과를 보면, 관찰자의 심리적 거리와 수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

표 2. 무능사건 상황 관찰자 심리적 거리(친밀/소원)와 수(다/소)에 따른 수치심 평균

		관찰자 수		계
		다수	소수	
관찰자	친밀	2.18	1.75	1.97
심리적 거리	소원	2.21	1.97	2.10
계		2.20	1.86	

주.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 정도가 높은 것임.

표 3. 무능사건 상황 관찰자 심리적 거리(친밀/소원)와 수(다/소)에 따른 수치심 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피험자 간	198.30	124	1.60	
피험자 내				
관찰자 심리적 거리(A)	1.91	1	1.91	5.36*
오차 a	44.25	124	.36	
관찰자 수(B)	13.75	1	13.75	71.81**
오차 b	23.74	124	.191	
AXB	1.14	1	1.14	9.91**
오차 ab	14.31	124	.11	

\*  $p < .05$ , \*\*  $p < .01$

났다( $F(1,124)=9.91, p<.01$ ). 이는 관찰자가 많은 경우에는 친하고 소원한 경우의 차이가 0.03으로 적게 나타나는 반면, 관찰자가 적은 경우에는 관찰자가 친하고 소원한 관계에 따른 차이가 0.2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관찰자가 친한 상황에서의 수치심( $M=1.97$ )보다는 소원한 상황에서의 수치심( $M=2.10$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찰자와의 심리적 거리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F(1,124)=5.36, p<.05$ ), 관찰자 수가 많을 때( $M=2.20$ )가 적을 때( $M=1.80$ ) 보다 수치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F(1, 124)=71.81, p<.01$ ) 관찰자 수에 따른 주효과도 나타났다.

관찰자의 심리적 거리와 수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무능사건 상황에서는 관찰자가 많거나 소원한 경우가 개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찰자의 심리적 거리와 관찰자 수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볼 때, 관찰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관찰자와의 심리적 거리에 따른 수치심 정도의 차이가 적게 나타

나는 반면, 관찰자가 적은 경우에는 관찰자가 소원한 상황과 친밀한 상황간의 수치심 정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관찰자가 많은 경우에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기는 하지만, 소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나의 무능함이 드러날 때에는 관찰자의 친소 변인이 또 다른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결과로, 도덕과 관련된 위반사건 상황에서도 관찰자와의 심리적 거리나 관찰자 수가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설 4와 5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반사건 상황에서 유발되는 죄책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관찰자와의 심리적 거리(친밀/소원)(2) X 관찰자 수(다수/소수)(2)의 평균을 산출하여 표 4에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의 결과를 보면, 관찰자의 심리적 거리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관찰자 수가 많을 때가 적을 때보다 죄책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F(1,149)=34.96, p<.01$ ) 관찰자 수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관찰자의 심리적 거리와 수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F(1,149)=.48, n.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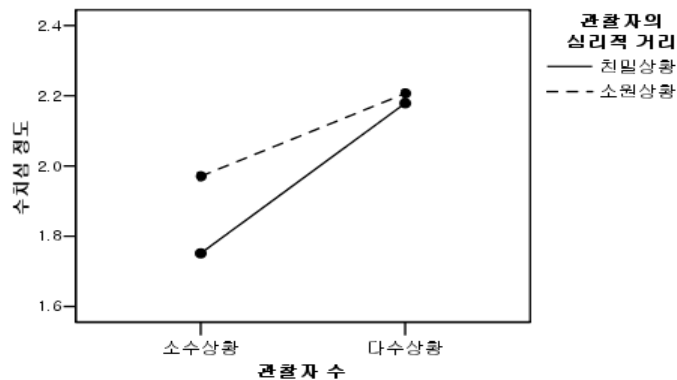


그림 1. 무능사건 상황 관찰자 특성변인에 따른 수치심 정도의 평균

표 4. 위반사건 상황 관찰자 심리적 거리(친밀/소원)와 수(다/소)에 따른 죄책감 평균

		관찰자 수		계
		다수	소수	
관찰자	친밀	2.91	2.72	2.82
심리적 거리	소원	2.95	2.70	2.82
계		2.93	2.71	

주. 점수가 높을수록 죄책감 정도가 높은 것임.

표 5. 위반사건 상황 관찰자 심리적 거리(친밀/소원)와 수(다/소)에 따른 죄책감 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피험자 간	376.97	149	2.53	
피험자 내				
관찰자 심리적 거리 (A)	.01	1	.01	.02
오차 a	53.90	149	.36	
관찰자 수(B)	7.37	1	7.37	34.96*
오차 b	31.41	149	.211	
AXB	.11	1	.11	.48
오차 ab	33.36	149	.22	

\*  $p < .01$

이는 도덕과 관련된 위반사건 상황을 경험한 후에는 관찰자가 많은 경우가 적은 경우보다 죄책감을 더 많이 경험하며, 관찰자가 친밀한가 소원한가의 문제는 상황에 따른 죄책감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위반사건 상황에서는 관찰자 수에 따라 죄책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죄책감은 사적인 정서인 만큼 개인 내적인 준거와 관련된 정서로서 관찰자의 많고 적음에 따른 영향력이 적을 것으로 상정하였으나, 본 실험의 결과에서는 위반사건 상황 후에 경험하는 죄책감은 관찰자가 많은 경우에 더 크게 나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찰자 수 변인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관찰자가 많은 경우는 적은 경우보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모두 더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반사건 상황에서 관찰자가 친한 사람인가 소원한 사람인가에 따라 죄책감을 경험하는 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위반사건 상황에서는 관찰자가 친한 경우에 죄책감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상정한 <가설 5>도 기각되었다. 이는 관찰자가 친한가 소원한가하는 것은 개인이 규범에 위배되는

사건을 경험한 후에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논 의

근래에 들어서 자의식적 정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도덕적 정서로서 수치심이나 죄책감은 우리 교육에서 꼭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타인의 기준을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고 행동하거나 자신이 잘못된 일에 대해 적절한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갖게 된다면 누가 보지 않더라도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타인이 어떻게 바라볼지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역할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바람직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두려워하는 자의식적 정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게 된다면 역기능적인 대처를 하게 될 가능성도 많아진다. Kaufman(1989)은 수치심은 자기의 병이자 영혼의 병으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이해하고 치유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치심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상담 장면에서 오는 내담자 중에도 실패나 과오를 경험한 후에 심리적 고통을 겪는 이유가 단순히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누구나 부정적인 문제를 경험하면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수치심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과도하게 타인을 의식함으로써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송수민(2008)의 연구에서도 수치심경향성이 높은 개인들은 부정적 사건을 건설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반추함으로써 더욱 적응이 어려우며, 이들이 보다 자신의 문제와 자기를 분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고려하는 반성적 반응양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귀인이나 반응양식들이 수치심경향성과 관련된 개인의 내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외 상황적 변인에 의한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개인의 수치심경향성은 무능사건 상황에서, 죄책감경향성은 위반사건 상황에서 심리적 고통정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관찰자의 심리적 거리(친밀/소원)와 관찰자 수(다수/소수)에 따라 각각 상황에서 유발되는 수치심, 죄책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mith와 Eyr(2002)의 연구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단순히 공적, 사적 정서로 구분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치심은 공적 상황 내에서도 관찰자의 심리적 거리와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수치심을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또한, 죄책감도 관찰자 수에 따라 개인에게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적 정서로만 구분한 Smith(2002)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죄책감이 관찰자가 많은가 적은가 하는 관찰자 변인에 의해 영향

을 덜 받을 것으로 상정하였으나, 죄책감도 수치심과 마찬가지로 관찰자가 많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책감이 수치심 보다 덜 고통스러운 정서이고 긍정적인 요소와 관련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들이 있지만, 본 연구결과는 관찰자가 많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죄책감도 수치심 못지않게 개인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상황적 변인을 좀 더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교육적인 시사점을 찾아본다면, 수치심경향성이 높은 사람을 교육하거나 상담할 때에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더불어 상황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이다. 예컨대, 학교에서 학생은 자신의 무능함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수치심경향성이 높은 학생은 관찰자가 많거나 낮은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자가 학습자로 하여금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재학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습자의 잠재력을 키워 줄 수 있는 상황적 변인들에 대해 민감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기숙(2003)의 지적처럼, 수치심과 죄책감 중 무엇이 더 병리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관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죄책감경향성도 개인의 심리적 고통에 수치심경향성 못지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래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작은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익명성이 보호되지 않은 채로 노출이 되거나, 정보를 쉽게 공유하는 특성들이

있음을 고려해 본다면, 관찰자가 많아지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게 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하면서 관찰자가 있는가 없는가하는 공적/사적인 상황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적인 상황 내에서도 관찰자의 특성이 다른 상황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제까지 간과되어져 왔던 상황적 변인의 중요성을 재인급하고, 수치심과 죄책감의 본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지적될 수 있는 제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는 상황에 따른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정적 문제의 종류별, 관찰자 특성(심리적 거리와 수) 변인을 고려하여 연구 설계를 하였다. 부정적 문제의 종류는 피험자 간으로 설계하였으나, 관찰자 특성에 따른 개인의 반응은 각 상황마다에서 종속변인의 반복측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피험자가 지루해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게 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으로서 추후연구에서는 개인의 집중을 저해하는 설계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정적 문제의 종류를 도덕과 무관한 무능사건과 도덕과 관련된 위반사건 두 가지로 설정한 것은 선행연구의 틀 안에서 연구문제를 다루고, 상황적 요인의 영향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었으나, 개인이 경험하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은 보다 다양할 수 있고, 관찰자의 특성도 심리적 거리나 수 외의 다른 변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관찰자의 친밀관계 상황과 소원관계 상황을 조작해야 하는 문제로 조사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각 연령별 자의식적 척도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적 관점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상황에 따른 수치심과 죄책감을 형용사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고, 심리적 고통이나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제작하여 활용하였는데, 수치심과 죄책감관련 형용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번역하여 사용함으로써 문항구성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화된 수치심 및 죄책감 관련 형용사 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수치심과 죄책감을 연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며, 진술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 정서 연구의 어려움 외에도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해 갖는 거부감 때문에 연구에서 다루기 힘든 면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죄책감을 경험했던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거나 이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 그리고 실험적 연구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함께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정교한 대처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남기숙 (2002).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수치심과 죄책감의 구분 문제. 서울대학교, 심리과

학, 11(1), 35-52.  
남기숙 (2003). 수치심과 죄책감. 한국 임상심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논문.  
류설영 (1998).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죄책감. 수치심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연구: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수민 (2008).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심리적 특성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25-144.  
유 경, 민경환 (2002). 아동의 도덕적 정서의 발달(수치심과 죄책감). 서울대학교, 심리과학, 11(1), 53-69.  
Asendorpf, J. (1986). Shyness in middle and late childhood. In: W. H. Jones, J. M. Cheek & S. R. Briggs (Eds.), *Shyness: perspectives on research and treatment*. New York: Plenum.  
Barden, R., Zelko, F. A., Duncan, S. W., & Masters, J. C. (1980). Children's knowledge about the experiential determinants of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968-976.  
Benedict, R. (1946). *The chrysanthemum and sword*. Boston: Houghton Mifflin.  
Buss, A. H. (1980).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San Francisco: Freeman.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Original work published 1950).  
Ferguson, T. J., Eyre, H. L., & Ashbaker, M. (2000). Unwanted identities: A key variable in shame-anger links and gender differences in shame. *Sex Roles*, 42, 133-157.  
Freud, S. (1953). Three essays on theory of sexuality. In: J. Strachey (Ed.), *The standard*

-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7, pp.134-243).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05).
- Harder, D. H., & Lewis, S. J. (1987). The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In J. N. Butcher &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6, (pp.89-114). Hillsdale, NJ: Erlbaum.
- Harder, D. H., & Zalma, A. (1990). The two promising shame and guilt scales: a construct validity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729-745.
- Harter, S.(1986). Processes underlying the construct,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the self-concept in children. In J. Suts, & A. Greenwald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3. Hillsdale, NJ: Erlbaum.
- Harter, S., & Whitesell, N. R. (1989).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single, multiple, and blended emotion concepts. In P. Harris & Harris & C. Saarni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wthorne, N. (1962). *The scarlet letter: An annotated text, backgrounds and sources, essays in criticism*. New York: Norton. (Original work published 1850)
- Jacoby, M. (1991). *Shame and the origins of self-esteem*. London: Routledge.
- Janoff-Bulman, R. (1979). Characterological versus behavioral self-blame: Inquires into depression and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508-516.
- Kaufman, G. (1989). *The psychology of shame: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s*. London: Routledge.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wis, H. B. (1987). *The role of shame in symptom formation*.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ewis, M. (1992). *Shame: the exposed self*. New York: The Free Press.
- Lewis, M. (2003). The Role of the Self in Shame. *Social Research.*, 70(4), 1181-1204.
- Lewis, M., Alessandri, S., & Sullivan, M. W. (1992). Differences in shame and pride as a function of children's gender and task difficulty. *Child Development*, 63, 630-638.
- Lutwak, N., & Ferrari, J. R. (1997). Understanding shame in adults: retrospective perceptions of parental-bonding during childhood.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5(10), 595-598.
- Lutwak, N., Panish, J., & Ferrari, J. R. (2002). Shame and guilt: characterological vs. behavioral self-blame and their relationship to fear of intima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4), 909-916.
- Nathanson, D. L. (1992). *Shame and pride: Affect, sex and the birth of the self*. New York: Norton.
- Olthof, T., Schouten A., Kuiper, H., Stegge, H., & Jennekens-Schinkel, A. (2000). Shame and guilt in children: Differential situational antecedents and experiential correlate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1-64.
- Piers, G., & Singer, A. (1971). *Shame and guilt*. Springfield, II: Thomas.

- Smith, R. H., & Eyre, H. L.(2002). The role of public exposure in moral and nonmoral shame and guil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1), 138-159.
- Tangney, J. P (1992). Situational determinants of shame and guilt in young adulthoo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199-206.
- Tangney, J. P., Barlow, D. H., Wagner, P., Marschall, J. E., Borenstein, J. K., Sanftner, J., Mohr, T., & Gramzow, R. (1996).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constructive versus destructive responses to anger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780-796.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Tangney, J. P., & Fischer, K. W. (1995).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New York: Guilford Press.
- Tangney, J. P., Marschall, D. E., Rosenberg, K., Barlow, D. H., & Wagner, P. E. (1994). *Children's and adult's autobiographical accounts of shame, guilt and pride experiences: An analysis of situational determinants and interpersonal concerns*. Unpublished manuscript.
- Tangney, J. P., Miller, R. S., Flicker, L., & Barlow, D. H. (1996). Are shame, guilt, and embarrassment distinct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256-1269.
- Tangney, J, P, Wagner, P. E., & Gramzow, R. (1989). *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TOSCA)*. George Mason University.
- Witkin, H. A., Lewis, H. B., & Weil, E. (1968). Affective reactions and client- therapist interactions among more differentiated and less differentiated patients early in therap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46, 193-208.
- Zimbardo, P. G. (1977). *Shyness: what it is, what to do about it*. New York: Jove.
- 원 고 접 수 일 : 2008. 11. 25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2. 8  
게 재 결 정 일 : 2009. 2. 9



## **Comparison between Shame-Proneness and Guilt-Proneness: Differences by Situational Variables**

**Soo Min Song**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the functions of shame-proneness and guilt-proneness in the relation of contingent situations. The results from Study which were investigated to examine the situational variables in relation to shame and guilt, are as follows. Considering on the types of negative situations, shame-proneness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psychological pain on the nonmoral situation(e.g., incompetence situation), while the guilt-proneness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psychological pain on the moral situation (e.g., transgression situation). In nonmoral situation, the participants reported higher shame scores when more observers and the less intimate observers were involved. On the other hand, in moral situation, the participants reported higher guilt scores only when many observers involved. In Study, it showed to bring the importance of situational variables into light in understanding shame-proneness and guilt-proneness.

*Key words* : shame-proneness, guilt-proneness, situational variable, adaptation